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날개를 펴다

Spread its wings for a new leap



유성문
by You, Seong-moon

-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재학
- 2006 장주시 건축사진 공모전 입선
- 제32회 충청북도 미술대전 건축부분 입선
- 제2회 한국농촌대전 특선
- 제6회 도쿄모모코리아 디자인 공모전 입선
-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부문 대상

본 기행문은 2009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건축탐방에 참가한 수상자를 대표하여 필자가 건축 기행문을 개재한 것이다.

2009년 5월~8월동안 더위와 싸름하며 정답이 없는 설계로 고민을 하며 체력적으로 지치게 하였던 2009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리를 일본 후쿠오카로 2박 3일의 일정으로 초대하였다. 친근하기만 하던 대한민국 땅을 떠나 가깝지만 먼 이웃나라 일본답사는 긴장과 함께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내게 안겨주었다.

11월 11일 인천공항에 아침 7시 30분까지 모여야 했기에 우리팀은 청주에서 4시 30분 공항버스에 올랐다. 전날 긴장한 탓인지 잠이 오질 않아 눈에는 피곤한 기색이 보였고 우리는 버스에서 잠들었다. 공항에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이기로 한 장소에 학생들이 하나 둘 모이기는 했지만 처음에 어떻게 무슨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우리팀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정도였다. 프리젠테이션때 날카로운 눈빛으

로 우리를 보시던 유대근, 김향희 심사위원님이 도착하셨고 대한건축사협회의 관계자와 함께 우리 18명은 후쿠오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상공에서 바라본 후쿠오카의 주거단지는 바둑알을 줄에 맞추어 늘어놓은 듯 정돈이 잘 되어있었으며 소박한 느낌을 주었다.

후쿠오카에 도착한 우리는 버스로 이동하였으며, 이동하는 동안 좌측통행하는 차량들의 어색한 모습을 본 후에야 일본에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첫 날부터 바람이 불고 날씨가 흐려 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으나 하는 우려와 걱정이 들었다. 그래도 일정은 취소되지 않고 진행 되었으며 일본에서의 첫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였다. 기내식을 먹긴 하였지만 여러 곳을 직접 걸어다니며 공간을 체험하는 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배를 든든히 채워야만 했다. 같은 문화권이어서 그



〈그림 1〉 외국인으로서의 최초로 일본 건축학회상을 수상한 렐콜하스의 9, 10동



〈그림 2〉 캘리포니아의 밝은 이미지를 연상케하는 색상으로 외장을 장식, 마크백의 8동

런지 몰라도 일본의 우동은 어색하지가 않고 입맛에 맞았으며, 양이 푸짐하여 모두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일본에서의 첫 식사를 마친 우리는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것을 무시한 채 꿈과 열정이 만들어낸 도시공간인 'NEXUS WORLD' 를 답사하였다. 이 곳은 아라타 이소자키를 중심으로 오스카 투스케, 크리스티앙 포잡박, 마크맥, 램쿨하스, 스티븐 홀, 오사무 이시아미라는 6인의 세계적인 건축사들이 설계에 참여하여 이슈가 된 단지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20분.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보고 싶은 마음에 모두들 발이 빨라졌으며 우리는 사진으로 이곳이 주는 감정과 느낌을 카메라에 담았다. 각기 다른 표현과 설계스타일이 각동의 개성을 살리면서 하나의 단지를 어색하지 않는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합주곡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를 둘러보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고 주거단지이기에 내부를 볼 수 없는 점이 아쉬웠지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우리는 후쿠오카 타워를 향하여 이동하였다. 234m의 높이로 일본 해변가에 있는 타워 중 가장 높다고 가이드님이 설명해 주셨다. 전망대에 오르고 싶었지만 시간과 돈이 따라주지 못하여 위로 올려보는 것으로 만족해야했다.

바로 앞에는 해변공원이 위치하였으며, 비바람이 마침 강하게 몰아쳤기에 해변을 거닐 수는 없었지만 이곳에는 일본 최초로 인공지반을 이용한 건물이 있었다.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은 바람으로 인한 파도로 위태해 보였다. 자연을 정복한 인간에 대한 자연의 복수같이 느껴졌다. <그림 1~2>

다음 목적지는 후쿠오카 돛구장이다. 올림픽에서 우승한 우리나라도 가지지 못한 돛 구장을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마음 같아서는 내부로 들어가 야구 경기도 관람하고 돛의 내부도 촬영하고 싶었지만 경기가 없어 외관을 감상하는 것에 머물러야했다. 초대형의 돛을 개폐하는데에는 한화로 약 1,000만원 정도가 소비된다고 설명해 주셨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야구장 주변 외부공간에는 여러 조형물과 공원의 조성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즐기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주어 야구장이 그저 경기만 보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공원으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그림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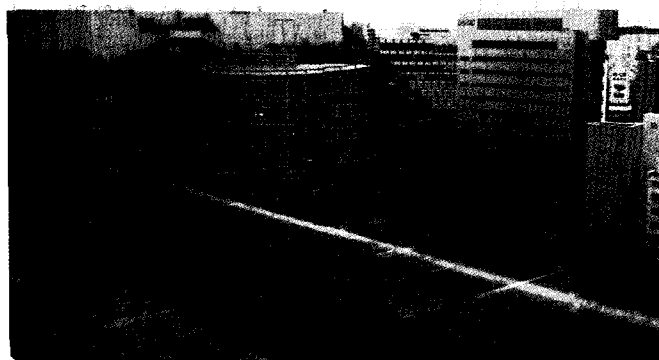
후쿠오카 돛을 둘러본 후 우리는 시내에 있는 아크로스 후쿠오카를 방문하였다. 친환경건축 수업시간에 보고 들었던 기억을 더듬으며 건축물을 구경하며 사진기에 모습을 담았다. 시내 한복판에 산을 옮겨 놓은 듯 한 건축물은 주변 녹지와 어울려 하나의 자연경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스텝가든을 오르고 싶었으나 비가 오는 관계로 출입이 금지되어 매우 아쉬웠다. 가이드가 건물의 설비관계자를 초빙하여 건물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그분은 우리를 심포니 홀로 초대해 주셨다. 공연이외에는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심포니 홀은 거대하였으며 내부에는 목재마감의 냄새가 가득하였다. 아무도 없는 거대한 홀은 우리들로 하여금 차분하며 숙연해지게 만들어 주었다. 그곳에서 단체사진을 찍어 우리가 심포니 홀에 왔음을 인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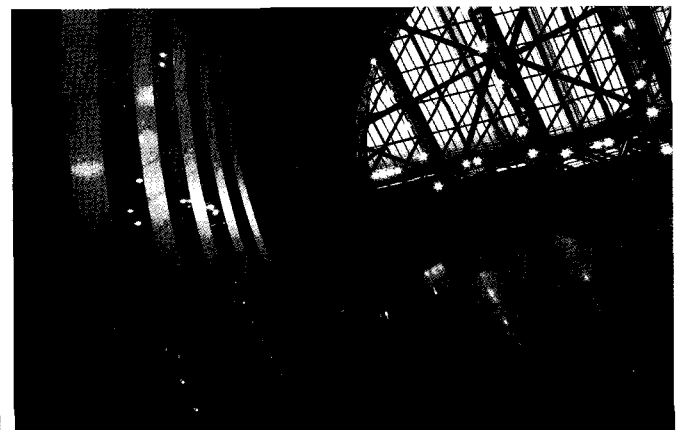
<그림 3> 후쿠오카돛의 외관. 일본 최초의 개폐식 돛구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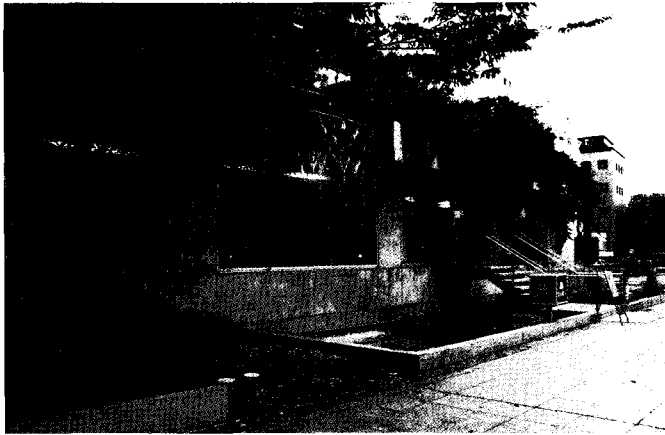
<그림 4> 외부에는 유명 인사들의 손을 본떠 만든 조형물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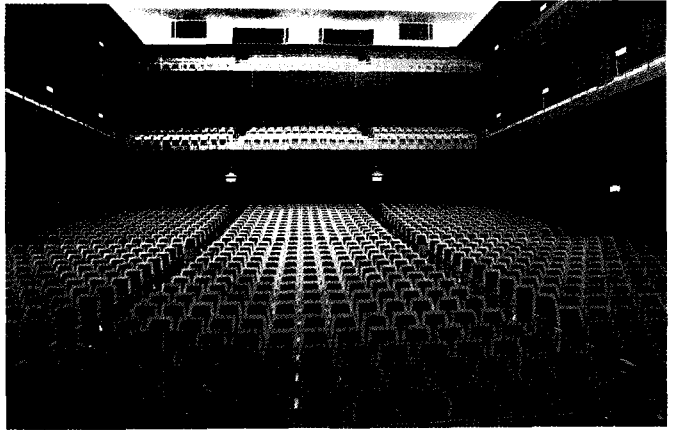
<그림 5> 아크로스 후쿠오카의 스텝 정원의 모습과 중심의 아트라운



<그림 6> 내부에서 아트라운 부분을 올라다 보았다



〈그림 7〉 스텝정원의 한켠에는 수영공간을 배치하였다. 정원에서 떨어지는 물이 인상적이었다



〈그림 8〉 심포니홀의 내부전경. 1,867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

이렇게 오후 일정을 마친 후 지친 몸을 보양해주기 위해 저녁식사는 고기뷔페로 하였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담아 구워먹고 싶었으나 고기가 잘 익지 않아 그 사이에 초밥과 과일로 배를 채웠다. 그렇게 고기는 많이 못 먹었으나 여러 가지 해산물요리를 맛 볼 수 있었다. 배도 부르고 몸도 피곤하고 이제 호텔에서 쉬고 싶었지만 다음 일정이 또 있었다. 일단 우리는 호텔에 짐을 풀고 걸어서 캐널시티 하카타로 향하였다.

캐널시티 하카타는 약 180m의 인공운하를 두어 주변으로 호텔, 레스토랑, 영화관, 상점으로 이루어진 멀티플렉스이다. 인공운하를 따라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행하여지며 우리나라



〈그림 9〉 멀리서 바라본 캐널시티. 광고 조명으로 멀리서도 눈에 쉽게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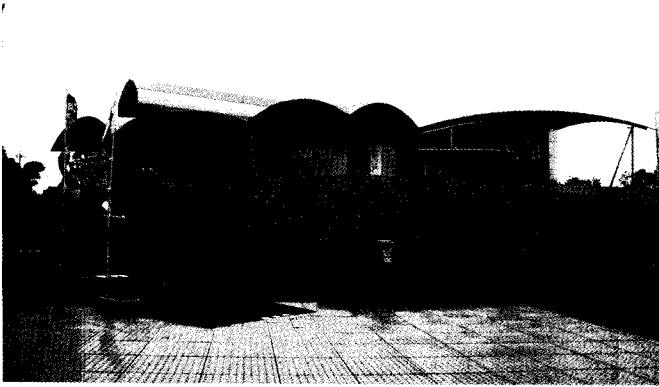
〈그림 10〉 운하를 중심으로 좌측의 호텔과 우측의 상업 시설을 극선으로 이용한 배치

의 동대문의 패션타운과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우리가 갔을 때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아무런 이벤트도 없어서 약간은 실망하였다. 실망을 뒤로하고 우리는 호텔로 향하였다. 몸은 피곤하였지만 우리는 씻고 다 같이 모여 이야기 할 시간을 가졌고 내일의 답사를 꿈꾸며 잠자리에 들었다. 이렇게 일본에서의 첫날은 바쁘게 지나갔다. 〈그림 9~10〉

어제의 피로가 풀리지는 않았지만 일정을 위해 아침부터 서둘러야 했으며 호텔에서의 소식을 마친 우리는 모든 짐을 꾸러 신속히 버스에 올랐다. 이튿날 첫 방문지는 야츠시로 시립박물관이었다. 박물관을 대충 둘러본 우리팀은 박물관근처의 주택단지를 둘러보았다. 깨끗한 인도와 차량들의 질서를 보고 일본사람들의 의식을 알 수 있었다. 주택단지는 조용하였으며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안마당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정원이 발달했다는 일본을 단적으로나마 주택단지와 안마당에서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구마모토 경찰서를 탐방하였다. 경찰서하면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 딱딱한 콘크리트와 철창으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공간이 떠올랐다. 버스에서 내려 역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는 미술관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찰서가 우리를 반겼다. 이곳은 전면에 유리를 두고 형태적인 변화로 필자가 생각했던 경찰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낮에는 정면부의 유리가 도시의 모습을 반사시켜주지만 밤에는 경찰서 내부가 흰이 보이는 투명한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보안상 경찰서 내부를 둘러 볼 수는 없었지만 1층 로비에서 관계자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1989년에 설립되어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수공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니 여기서 일본건축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들어선 후에 1년도 채 안되어 보수공사나 뭐니 하여 다시 공사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점에서 조금은 부끄러웠다. 〈그림 11~12〉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구마모토 실내체육관이다. 동형식으로 이루어져 비가오나 눈이오나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사람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체육관 안에 들어서니 테니스를 치는 사람, 산보를 즐기는 사람, 한켠에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는 여러 가지



(그림 11) 아츠시로 시립 미술관 램프의 구성으로 접근성을 높인 배치



(그림 12) 구마모토 경찰서 외부마감에 비추어진 반대편의 모습이 인상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다.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시킴으로써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인상 깊었다. 내부에서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자 관계자가 사진은 안된다고 제지를 했지만 우리는 관계자 눈을 피해 돌아다니며 몰래 사진을 찍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답사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하루종일 걸어 다니면서 답사를 하였기에 피곤하기도 하였지만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힘이 되었다. 구마모토시영 신치단지 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단지로서 꽤 넓은 공간에 자리하고 있었다. 각각의 단지를 마다 다른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 각기 특색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커뮤니티 공간의 활용이 눈에 띄었다. 건물을 찍으면서 돌아다니는데 꼬마아



(그림 13) 기동사이로 보이는 커뮤니티 공간

이가 '곤니치와' 하고 인사를 했다. 주위를 둘러 보았지만 그곳에는 같이 이동하였던 학교동기들뿐이 없었다. 이곳의 아이들은 이방인을 반겨주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꼬마아이들에게 인사를 수차례 받았다. 아이들이 인사하며 먼저 다가와 우리도 서툰 일본어로 같이 인사하며 거리감이 사라짐을 느꼈다. 아이들을 따라가니 단지 커뮤니티 공간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같이 놀며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이렇게 우리를 반갑게 반겨준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지만 주어진 시간이 다되어 우리는 아이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버스로 향하였다. (그림 13~15)

호텔로 향하는 길은 하루 피로를 풀어주는 자양강장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호텔에서 씻고 폭 쉴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해지면서 한편으로는 마지막날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호텔에서 석식을 하고 구마모토성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하루하루 일정이 뻑뻑하다보니 방에서 쉴 사람은 쉬고 답사 갈 사람은 답사가 자유로운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씻고 시간에 맞추어 1층 로비에 오니 역시나 다들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모여 있었다. 구마모토성을 가기 위해 지상 전동차를 이용하였다. 조선시대 경성을 배경으로 한 티비 프로그램에서나 나올 법한 전동차를 타니 다들 마냥 신기하는 눈치였다. 전동차에서 다 같이 단체사진을 찍으며 옆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성으로 향하였다. 야간이어서 성문은 잠겨있었지만 야간에 비추어진 조명은 구마모토성은 더욱 웅장하고 엄숙한 자태로 우리에게 보여졌다. 외부로부터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높은 대지에 위치하였으며 성을 둘러싼 성벽의 기반부분은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높았다. 성벽의 기반을 축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몇 년 동안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다.

시내에서 심사위원님들은 우리들을 초대해주어 이야기 할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 여기서 간단하게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마지막날을 아쉬워하며 같이 여행을 간 다른 학교 학생들과 못 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건축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욱 엮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일본에서 아쉬운 마지막 밤이 흘러가고 있었다.

마지막날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현립 장식 고분관을 방문하였다. 넓은 부지에 서있는 안도다다오의 노출콘크리트 건물이 저 멀리



(그림 14)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준 신치단지의 꼬마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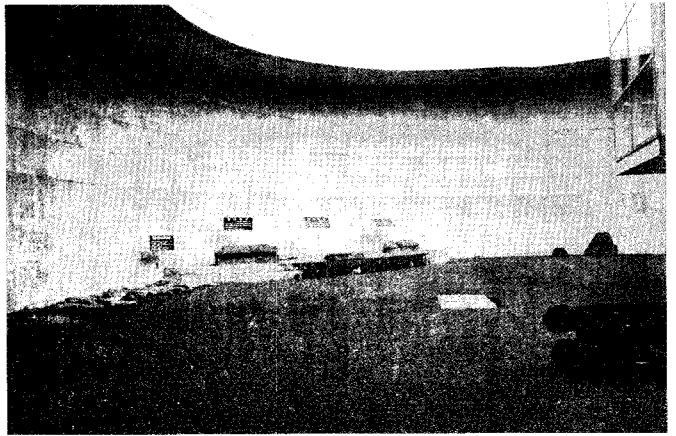
〈그림 15〉 외부공간에서 현관까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계단. 직접 올라가보니 조금은 무서웠다



〈그림 16〉 구마모토성을 배경으로 단체사진 한 컷



〈그림 17〉 장식 교분관에서 찍은 마지막 단체사진



〈그림 18〉 장식 교분관의 선 큰 전시공간

에서부터 눈에 띄었다. 건물은 주변 출토지역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었으며, 램프를 통해 자연을 느낄 수 있었으며 섬세한 내부공간의 꼼꼼함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7~18〉

이렇게 2박 3일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우리는 후쿠오카 공항으로 향하였다. 공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마친 후에 내리는 비가 고마웠다. 2박 3일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기에 서로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이 부족했었지만 심사위원님과 대한건축사협회의 담당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어 조금이나마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고, 우리는 카페를 만들어 한국에 돌아와서 짧은 날의 추억을

공유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기로 하였다. 일반 관광이었다면 4일 정도 소요되는 시간을 2박 3일로 축소하여 강행군으로 이루어진 답사기간 동안 건강하고 아무 사고 없이 답사를 마치게 되어 다행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각자 지방으로 흩어져야 하기에 모두들 제대로 된 인사는 못 하고 헤어져 아쉽지만 건축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었던 점은 분명하였다. 이번 건축탐방을 계획해주신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물에 대해 가이드가 되어주신 유대근, 김향희 심사위원님,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의 건축계를 이끌어 나갈 건축 동기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답사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우리들의 인연은 이제부터가 시작임을 2009한국건축문화대상은 말해주고 있었다. ■